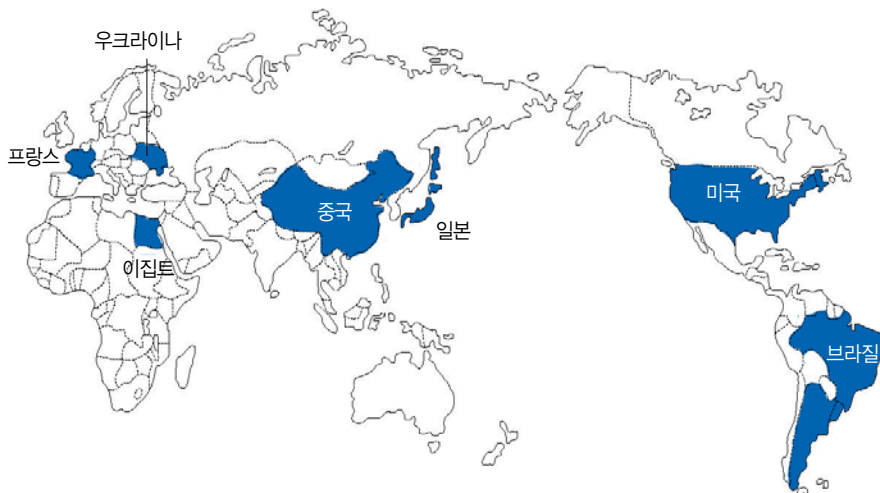


해외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뉴스



<p>북아메리카</p> <p>미국 미국산 대두·옥수수 작황, 1개월래 첫 하락 미국산 대두박 수출, USDA 사상최고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미국산 옥수수작황은 2% 포인트 하락, 밀과 대두는 일정</p>	<p>아시아</p> <p>일본 일본, 올해 엘니뇨 발생가능성 하향전망</p> <p>중국 중국, 2013/14년 대두수입 사상최고치 기록</p>
<p>남아메리카</p> <p>브라질 브라질 농가, 금월 옥수수가격 보조금 수령전망</p>	<p>유럽</p> <p>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500,000~550,000톤의 곡물손실 우려 우크라이나 밀 품질, 강우로 인해 하락 우크라이나, 2014년 곡물수확량 63백만 톤 이상으로 최고치 기록전망</p> <p>프랑스 프랑스산 밀, 알제리 수출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p>
<p>아프리카</p> <p>이집트 이집트, 러시아산 밀 175,000톤 구매</p>	

1. 미국

■ 미국산 대두·옥수수 작황, 1개월래 첫 하락

USDA에 따르면, 미국산 옥수수 및 대두작황은 최근 5주래 첫 하락했다고 한다. 7월27일 기준, 대두의 71%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으로 전주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며 옥수수는 75%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이라고 한다. 이러한 두 곡물의 작황수준 하락은 이상적 작황을 전망했던 전문가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옥수수 및 대두 작황하락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위스콘신, 인디애나 주 등에서 언급되었다. USDA 국립농산물통계원 인도지사에서는 “서늘하고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기후 때문에 많은 농가들은 호우를 기대했었다” 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황부진에도 불구하고, 대두작황은 80%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이었던 1994년 7월말 이후 최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옥수수작황은 2010년 7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최근 가장 이상적이었던 작황시기는 2004년 7월이라고 한다. 이러한 건조한 기후에 따른 아이오와 등 주요 대두 생산지역의 수확감소 우려는 28일 11월신곡 시카고선물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해 2.2% 하락마감했다. USDA 국립농산물통계원 미네소타지사는 “남부 미네소타 농가들은 곡물수분 재보충을 위해 비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USDA에 따르면 봄밀은 70%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으로 전주와 동일하며 겨울밀수확은 83% 완료로 2009-13년 평균보다 3%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2014.7.29.)

■ 미국산 대두박 수출, USDA 사상최고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USDA는 올해 미국산 대두박 수출이 10.7백만 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이미 예전에 전망했으나, 만약 국내사료업자들이 비싼 대두박에서 값싼 주정박(DDG)으로 원료사용을 전환하고 더 많은 대두박을 수출시장에 공급하게 된다면 대두박 수출추정치는 USDA 예상치도 뛰어넘을 것이다. 주정박 가격은 수출수요 부진 및 국내생산 가속화로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대두박은 타이트한 국내공급으로 가격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몇몇 주요시장에서 대두박과 주정박 간 가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가축사육 구매책임자들은 원료를 전환할 유인을 얻고 있으며 더 많은 대두박이 해외구매자들에게 선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산 대두박 수출업자들은 향후 남미수출업자들과 수출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나, 사상최대 수출수요로 2014/15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11백만 톤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2014.7.30.)

■ 미국산 옥수수작황은 2% 포인트 하락, 밀과 대두는 일정

USDA에 따르면, 미국산 옥수수작황은 건조한 기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예상치보다 더 하락했으나 수확전망치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한다. 한편, 대두 및 보밀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8월초 대두작황은 199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8월3일 기준 옥수수의 73%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으로 전주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며, 애널리스트들 예상평균치인 74%도 하회하는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는 64%가 같은 등급에 속했다. 한편, 대두는 71%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으로 전주대비 변화 없으며 작년에는 64% 수준이었다. 또한, 애널리스트 전망치인 70%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보밀도 70%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으로 변화 없으며 작년에는 68% 수준이었다고 한다. (2014.8.5.)

2. 브라질

■ 브라질 농가, 금월 옥수수가격 보조금 수령전망

브라질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농가들은 최근 낮은 옥수수가격으로 인해 금월 말 정부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보조금 221백만 달러가 농업부 및 재무부 장관에 의해 승인이 되었으며, 8일이내에 기획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후, 실행되는 데는 10일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옥수수 Pepro 경매는 8월에 열리며, Pepro는 정부가 농가나 협동조합에게 시장가와 정부가 설정한 최저가격 차를 지불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한다. 2013년에 농가들은 옥수수 8.86백만 톤에 대해 Pepro적용을 받았으며, 이번에 추가로 440백만 reais가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4.8.2.)

3. 일본

■ 일본, 올해 엘니뇨 발생가능성 하향전망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말 엘니뇨 발생가능성을 이전 전망치보다 더 낮게 예측했다. 월간 온라인게시판에서 일본 기상청은 엘니뇨 발생가능성을 50%로 예측했으며 폭우 및 가뭄을 동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본 기상청은 올 가을 엘니뇨 발생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일본 뿐만 아니라 지난주 미국 기상청도 이상기후 발생가능성에 대해 하향전망했으며, 지난달 호주기상청도 만약 엘니뇨가 발생한다고 해도 강도가 세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엘니뇨는 태평양 해수면 온난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동남아시아 및 호주에는 가뭄을, 남미에는 홍수를 야기하여 주요식량인 쌀, 밀, 원당생산에 차질을 줄 우려가 크다.(2014.8.11.)

4. 중국

■ 중국, 2013/14년 대두수입 사상최고치 기록

중국의 2013/14년 대두수입은 전년대비 17% 상승한 70백만 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두수입 증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의 팽창에 따른 결과인데, 중국국립곡물원유정보센터의 전망치는 USDA 전망치인 69백만 톤도 상회하는 수치라고 한다. 센터는 “대두수입의 대폭적인 증가는 지속적이고 강한 국내수요로부터 기인한다. 가공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다량의 값싼 대두수입분이 가공에 쓰이고 있다고 한다.(2014.8.13.)

5.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500,000-550,000톤의 곡물손실 우려

금요일,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동부지역 전쟁으로 60백만 톤 수확 전망 중 500,000-550,000톤의 곡물손실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생산자 및 교역자들은 수출곡물 공급경로 변경압박 하에 있다고 한다. 7월24일 기준, 곡물 총 20.5백만 톤을 수확했으며, 이 중 밀은 14.2백만 톤, 보리는 5.9백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수출의 경우 7월23일 기준(2014/15년 시즌 첫째달) 1.3백만 톤 가량의 곡물을 수출하였으며 이 중 보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편, 2013.14년 곡물 수출량은 32.3백만 톤으로 옥수수 20.3백만 톤, 밀 9.2백만 톤, 보리 2.4백만 톤이라고 한다. (2014.7.25.)

■ 우크라이나 밀 품질, 강우로 인해 하락

우크라이나는 올해 강우피해로 인해 동물사료용 밀을 더 많이 생산하고 높은 품질의 제빵용 밀은 더 적게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품질균형 변화로 국제곡물가격은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료용 밀을 많이 생산하는 유럽국가와의 강한 경쟁도 예상된다. 지난 주 파리의 밀 신곡 선물가격은 올 여름 반복되는 강우로 인한 풍부한 동물사료로 인해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2014.8.6.)

■ 우크라이나, 2014년 곡물수확량 63백만 톤 이상으로 최고치 기록전망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2014년 곡물수확량은 작년 최고치인 63백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널리스트들은 우크라이나가 최대 곡물 생산국 및 수출국으로서 올해 59-61백만 톤의 곡물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주 UkrAgroConsult사도 밀과 보리의 높은 생산량으로 인해 올해 곡물 수확량전망을 58.5백만 톤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러한 높은 곡물수확량 전망은 러시아와의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지속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흑해를 통해 수출하는 주요 밀 수출국으로서 2년연속 높은 수확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2014.8.13.)

6. 프랑스

■ 프랑스산 밀, 알제리 수출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독일 ADM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프랑스산 밀 신곡은 주요 밀 수입국인 알제리에게 적절한 품질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수확기간동안 강우로 밀 신곡의 품질하락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ADM은 “프랑스산 밀의 호화도(falling number)는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알제리로 수출계획되었던 상당부분 물량의 선적이 불가능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호화도는 제분용 밀의 품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ADM은 “이는 단백질 11%함량인 독일과 폴란드산 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수출업자들은 수출물량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주 독일 및 폴란드산 밀을 구매했다고 한다. 올여름 흑해지역 및 북부유럽의 밀수확 물량은 매우 이상적이나 품질면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ADM은 이에 대해 “이것이 최근 단백질 11%함량 독일 및 폴란드산 밀에 대한 수출수요상승 원인이다.” 라고 전했다. (2014.8.1.)

7. 이집트

■ 이집트, 러시아산 밀 175,000톤 구매

이집트 국영수입업체 GASC에 따르면, 이집트는 9월11-20일 선적분 러시아산 밀 175,000톤을 구매했다고 한다. GASC 부의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구매내역을 제시하였다: 올람으로부터 60,000톤, 카길로부터 60,000톤, 글렌코어로부터 55,000톤. 한편,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260.14달러로 구체적인 가격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람은 FOB기준 톤당 246.99달러에 톤당 화물비용은 11.88달러, 카길은 톤당 249달러에 화물비용은 11.70달러, 글렌코어는 톤당 249달러에 화물비용은 11.94달러. 7월1일 이후 현재까지 이집트의 총 밀 수입량은 890,000톤으로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밀이 대부분이다. 이달 초 밀 재고량은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집트 공급부장관에 따르면 이 재고량수준은 2014년 말까

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집트정부의 2013-14년 총 밀 구매량은 국내 산 밀 3.7백만 톤에 더해 해외수입량 5.46백만 톤이라고 한다. (2014.7.31.)